

21 세기의 아동 교육: 디지털 시대의 정서적 웰빙

개요

오늘날의 아동기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고등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아동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참여를 증대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은 아이들의 자기 표현, 정보 탐색 및 사회화를 고취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나 왓츠앱 메시지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더 나은 헬스케어, 공공 안전,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웰빙 지원 등 여러 조치로 인해 현대의 아이들의 삶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스트레스의 징후 역시 찾아볼 수 있다. 21 세기의 아이들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월등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술은 부모와 자녀의 연결을 돕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기기를 갖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기 어렵게도 만든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의 생활화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 불링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우리는 시급히 현대 아동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찰의 결과가 교육에 던지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는 아동이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부모들 및 공동체와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아동이 실행의 오류를 통해 학습해 나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 책은 아이들의 정서적 웰빙과 디지털 기술 사용에 중점을 두고, 사회의 발전에 발 맞춰 능동적 사전 대응이 가능한 교육 제도를 탐색한다.

제 1 부: 배경 설명: 21 세기의 아동

제 1 부에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과 정서적 웰빙 트렌드를 살펴본다. 1 장은 21 세기 아동의 삶에서 변한 점과 변하지 않은 점을 동시에 짚어보면서 이 책의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2 장에서는 아동의 디지털 기술 사용이 증가하고 온라인 접속 연령대가 낮아지는 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민성과 사이버 불링 같은 최우선 해결 과제와 이러한 과제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정서적 웰빙 지표의 트렌드와 이러한 트렌드의 근간이 되는 주요 보호 및 위험 요소들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불안, 스트레스 및 정신적 질환 같은 최우선 정책 과제를 비롯해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도 주목한다.

본 번역본의 품질과 원본 보고서와의 일치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번역자에게 있으며,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원본 보고서의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 부: 21 세기 아동 간의 관계

제 2 부에서는 아동 간의 관계와 부모에서 또래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생활 조력자들에 주안점을 둔다. 4 장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실제 및 가상 세계에서 우정에 대한 연구와 육아 스타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5 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우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오프라인의 관계를 대체하는가? 아니면 우정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에 힘을 실어주는가?

6 장에서는 디지털 세계에서 육아에 대해 알아본다. 세어런팅(아이에 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에 주목하여, 이러한 행위가 아이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및 아이들의 웰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7 장에서는 기후 변화, 강제 이주, 확산되는 개인주의 및 디지털화 같은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청소년 발달, 관계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제 3 부: 온라인 상의 기회와 리스크: 아동의 웰빙 보장

제 3 부에서는 아동의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온라인에서의 기회와 리스크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살펴본다. 8 장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이용 시간에 관한 연구를 재검토하고, 디지털 기술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여 연구 및 정책에서의 방법론적 한계에 대해 보다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9 장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디지털 성과 간 격차를 파악하고, 특히 고용,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에 있지 않은 소외계층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10 장에서는 “2012 온라인 상의 아동 보호를 위한 OECD 권고안” 개정에 대해 보고한다. 공공 정책 및 입법 영역으로서 온라인 보호의 역동적 특성을 강조하고, 최근 OECD 회원국 전반에서의 규제 대응에 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제 4 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아동: 디지털 리터러시 및 위기 시 회복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파트너십

제 4 부에서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전 섹션에서 제시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11 장에서는 스크린 타임 정책을 포함해 학생 웰빙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해 각국이 시행한 노력들에 대해 설명한다. 12 장은 사이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이며 역량 있는 (디지털) 사용자 육성을 장려하는 각국 정책을 포함해 디지털 시민성의 복합적인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네티켓에 대한 아동의 이해, 그리고 위기 시 회복력 구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섹션의 마지막인 13 장에서는 교사 교육 및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계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다.

제 5 부: 현안

14 장에서는 현 출판물 전반에 걸쳐 나타난 다양한 테마와 지식의 공백 지대에 주목한다. 본질적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동원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디지털) 세대 함양에 있어 각국에 도움이 될 연구 및 정책을 제언한다.

제언한 정책 중 다수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목표들과 연계되어 있기에 이 책을 포함한 보고서들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과제는 현재의 트렌드보다 앞서가거나, 최소한 이를 놓치지 않고 발 맞춰 나아가는 것이다.

여타의 공공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특정 분야를 넘어 정부 부처 및 연구 부문 전반에 걸친 협업이다. 민간 부문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시민의 발전에 맞춰 교육 역시 진화하고 성장해야 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변화를 예상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솔루션과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인생에서 최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번역: 유준영 / 감수: 최동주



문의: [Jun Yu \(jun.yu@oecd.org\)](mailto:Jun.Yu@oecd.org)

출판: Burns, T. and F. Gottschalk (eds.) (2019), *Educating 21st Century Children: Emotional Well-being in the Digital Age*,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7f33425-en>

웹사이트: <http://www.oecd.org/education/21st-century-children.htm>

사진 © Shutterstock/www.shutterstock.com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발행되었으며, 이에 기재된 의견 및 주장은 OECD 또는 그 회원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본 문서에 수록된 지도는 영토에 대한 지위나 자주권, 전 세계적으로 설정된 국경 및 경계 그리고 모든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명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자료는 해당 당국의 책임 하에 이스라엘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OECD 는 해당 자료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 및 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귀하는 OECD 의 콘텐츠를 귀하가 사용하기 위해 복사,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으며, OECD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제품의 인용 부분을 귀하의 문서,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및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출처와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알맞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공 또는 상업적 이용과 번역 권리에 대한 모든 요청은 rights@oecd.org 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 또는 상업적 용도를 위해 이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는 것에 대한 허가 요청은 직접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에 info@copyright.com 으로 보내거나 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CFC)에 contact@cfcopies.com 으로 보내야 합니다.